

#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 2008년 한국안데르센상 대상 수상작!

신라 토기장이 부자의 애틋한 사랑과 한이  
썩부쟁이처럼 뻗어난 길 - 꽃길

그 시대, 벼슬아치와 그 아첨배들에게 시달리는 백성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작품이다. 강정규(아동문학가)



아테나  
Athena

❖ 꽃길 김진영 글. 한용욱 그림.

### <성취 기준>

#### ❖ 국어 5~6학년

[문학] 작품 속 세계와 현실 세계를 비교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문학]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 본 교안은 선생님들께서 비상업적인 용도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읽기를 준비해요 (1)

1. ‘꽃길’ 하면 떠오르는 단어나 느낌을 생각나는대로 적어보세요.

2. 책의 앞표지와 차례를 보고 궁금한 것들을 질문해 보세요.

(앞표지)	(차례)	질문
 <p style="font-size: small;">2008년 한국안테르센상 대상 수상작 신라 토기장이 부자의 애끓는 사랑과 한이 속부쟁이처럼 뻗어낸 길 - 꽃길 그 시대, 역습이치의 그 이침됨을에게 치달리는 역성들의 어른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속풍이다. 장정(과)의영광하기 이태리</p>	<p>토기장이, 만오 와 우리는 안되는교? 하늘도 무심허다 주인상과 하인상 무엇보다 특별한 토기 수창아, 마이 아프나 가슴에 품은 토기 하늘이시여 제발 바람에 몸을 내맡긴 촛불 보라색 꽃길</p>	<p>(예시) 주인상은 무엇이고 하인상은 무엇일까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3. 말을 타고 있는 두 인물상이 있습니다. 차이점을 관찰하고 둘에 얽힌 짧은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 읽기를 준비해요 (1)

◎ 학습목표

- 책의 제목인 ‘꽃길’과 관련된 생각을 떠올릴 수 있다.
- 표지와 차례를 살피며 궁금한 것들을 떠올리고 질문할 수 있다.
- 인물상을 관찰하고 짧은 이야기를 서술할 수 있다.

1. ‘꽃길’ 하면 떠오르는 단어나 느낌을 생각나는대로 적어보세요.

- 꽃길만 걸으세요, 꽃이 핀 길, 좋은 일, 부귀영화, 잘 될거야, 부자되기 등
- 학생들이 생각하는 꽃길은 우리가 흔히 대중적으로 인식하는 길들이다. 이 책에서의 꽃길은 주인공이 이세상을 떠나 저세상으로 갈 때 연결해주는 길을 말하지만 미리 제시하진 않는다. 교사가 경험한 꽃상여의 ‘꽃’ 등을 이야기하며 다른 의미의 꽃길을 던지시 얘기할 수도 있다.

2. 책의 앞표지와 차례를 보고 궁금한 것들을 질문해 보세요.

(앞표지)	(차례)	질문
	<p>토기장이, 만오 와 우리는 안되는교? 하늘도 무심하다 주인상과 하인상 무엇보다 특별한 토기 수창아, 마이 아프나 가슴에 품은 토기 하늘이시여 제발 바람에 몸을 내맡긴 촛불 보라색 꽃길</p>	<p><b>(예시) 주인공은 무엇이고 하인상은 무엇일까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엇이 안된다는 것일까?</li> <li>• 특별한 토기란 무엇일까요?</li> <li>• 수창이는 왜 아픈 것일까요?</li> <li>• 만오와 수창이는 어떤 관계 일까요?</li> <li>• 촛불은 무얼 말하는 걸까요?</li> <li>• 표지에서 주인공은 어디를 가고 있는 걸까요?</li> </ul>

3. 말을 타고 있는 두 인물상이 있습니다. 차이점을 관찰하고 둘에 얽힌 짧은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 인물상 이야기가 책의 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결말과도 관련이 있구요. 그래서 미리 앞부분에서 인물상을 접해본 뒤, 독자의 감정을 이야기로 풀어보는 기회를 갖습니다.

- (예시) 두 남자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의복을 잘 갖춰입은 길동이이고 한 사람은 모자를 잃어버린 철동이였지요. 둘은 말을 타고 길을 떠났어요. 길동이는 배가 고플 때 주머니에서 먹을 것을 꺼내 나누어주었고 철동이는 밤에 손에 방울을 들고 갈 길을 안내해 주었어요. 둘은 말을 타고 사이좋게 협동해서 드디어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랐어요. 그리고 둘이 함께 만세를 불렀답니다.

## 읽기를 준비해요 (2)

1. 다음 경상도 지방의 방언(사투리)을 표준어로 바꾸어 보세요.

퍼뜩 꺼져라	
당장 치아뿌라	
알겠심더	
만날 내보고만 뭐라칸다	

2. 만오의 일에 관련된 낱말과 그 뜻을 맞게 연결하세요.

- |      |                                      |
|------|--------------------------------------|
| 가마 ● | ● 예술가들의 작업장                          |
| 물레 ● | ● 토기, 도자기를 구워내는 시설물                  |
| 토기 ● | ● 도자기를 만드는데 쓰이는 용구                   |
| 공방 ● | ● 점토를 반죽하여 500℃ 이상의 고온에서 소성하여 만든 용기. |

3. 나에게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다음에 적어보세요.

동물로 표현한다면	색으로 표현한다면	감촉으로 표현한다면	날씨로 표현한다면

4. 내가 많이 아팠을 때 부모님이 하셨던 행동과 말을 떠올려 보세요.

• 그 때 부모님은 어떤 말과 행동을 하셨나요?

• 그 때 부모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 읽기를 준비해요 (2)

◎ 학습목표

- 경상도 방언의 말을 표준어로 바꿀 수 있다.
- 만오의 일과 관련된 낱말과 그 뜻을 연결할 수 있다.
- 나의 '아버지'의 이미지를 글로 쓸 수 있다.

1. 다음 경상도 지방의 방언(사투리)을 표준어로 바꾸어 보세요.  
 - 경상도 지방의 사투리는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은 신라시대구요. 이 문항에서 사투리에 대해 맛보기식으로 표준어로 바꾸어보는 활동을 합니다.

퍼뜩 꺼져라	얼른 가버려라.
당장 치아뿌라	당장 치워버려라.
알겠심더	알겠습니다.
만날 내보고만 뭐라칸다	매날 나보고만 뭐라고 한다.

2. 만오의 일에 관련된 낱말과 그 뜻을 맞게 연결하세요.  
 - 토기장이 만오와 관련된 낱말을 제시하여 책의 앞부분 읽기의 이해를 돕습니다.

가마	●		●	예술가들의 작업장
물레	●		●	토기, 도자기를 구워내는 시설물
토기	●		●	도자기를 만드는데 쓰이는 용구
공방	●		●	점토를 반죽하여 500℃ 이상의 고온에서 소성하여 만든 용기.

3. 나에게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다음에 적어보세요.  
 - 이야기의 주인공인 '만오'는 수창이의 아버지이다. 수창이의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나의 아버지를 들여다보고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는다.

동물로 표현한다면	색으로 표현한다면	감촉으로 표현한다면	날씨로 표현한다면
사자	노란색	조금 거칠지만 포근한 웅단같은 느낌	대부분 해뜨고 바람 살랑 불고 편안한 날

4. 내가 많이 아팠을 때 부모님이 하셨던 행동과 말을 떠올려 보세요.  
 - 수창이가 아프게 될 때 만오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 위한 질문

- 그 때 부모님은 어떤 말과 행동을 하셨나요?

- 열이 많이 나네. 하면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심.  
 -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안쓰러워하심.

- 그 때 부모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 하셨다. 차라리 당신이 아팠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 내용을 짐작해 보아요

### < 책 읽기 전 짐작하기 O x 퀴즈 >

	책의 내용을 짐작해 봅시다.	O, X 로 쓰세요.
1	만오의 아들 수창이는 썩부쟁이 꽃을 좋아한다.	
2	귀족이건 평민이건 죽을 때는 무덤에 꺼묻거리를 같이 넣었다.	
3	아버지가 토기장이지만 수창이는 아버지가 만든 그릇에 밥을 담아 먹을 수 없었다.	
4	만오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다정하고 살갑게 대했다.	
5	수창이는 맨날 토기만 만드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다.	
6	만오의 작업장 마당에는 커다란 오동나무가 있었다.	
7	수창이는 산에서 멀구를 따먹고 온 뒤로 물똥을 싸기 시작했다.	
8	만오는 아픈 아들 수창이를 위해 집에 있던 콩과 도토리도 죽을 쑤어 먹였다.	
9	만오는 촌주덕에 잡혀가서 모진 매질을 당해도 끝끝내 인물상 토기를 내놓지 않았다.	
10	만오의 눈앞에 수창이는 꽃길에 둘러싸여 하인상을 타고 나타났다.	

## 내용을 짐작해 보아요

### 〈 책 읽기 전 짐작하기 ○ x 퀴즈 〉

	책의 내용을 짐작해 봅시다.	○, x 로 쓰세요.
1	만오의 아들 수창이는 썩부쟁이 꽃을 좋아한다.	○
2	귀족이건 평민이건 죽을 때는 무덤에 꺼묻거리를 같이 넣었다.	x
3	아버지가 토기장이지만 수창이는 아버지가 만든 그릇에 밥을 담아 먹을 수 없었다.	○
4	만오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다정하고 살갑게 대했다.	x
5	수창이는 맨날 토기만 만드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다.	x
6	만오의 작업장 마당에는 커다란 오동나무가 있었다.	○
7	수창이는 산에서 멀구를 따먹고 온 뒤로 물똥을 싸기 시작했다.	○
8	만오는 아픈 아들 수창이를 위해 집에 있던 콩과 도토리도 죽을 쑤어 먹였다.	x
9	만오는 촌주덕에 잡혀가서 모진 매질을 당해도 끝끝내 인물상 토기를 내놓지 않았다.	○
10	만오의 눈앞에 수창이는 꽃길에 둘러싸여 하인상을 타고 나타났다.	x

## 시대와 풍습을 파악하며 읽어요

1. 다음 신라시대의 풍습을 살펴볼 때 ‘꺼문거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쓰던 물건들뿐만 아니라 하인까지도 함께 무덤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라님께서 산 사람을 함께 묻는 풍습을 금지했기 때문에 산 사람은 묻지 않습니다. 그 대신 더 많은 꺼문거리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 )

2. 다음 낱말들을 시대적 배경,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낱말로 분류하세요.

삼복더위 순장 귀족 평민 도롱이 의원 부역 하인 돌림병 벼락 매미 비

시대적 배경

계절적 배경

3. 수창의 아버지 만오가 작업장에 입고 간 도롱이(비가 올 때 걸쳐 입는 우의)입니다. 지금 시대의 비옷과 비교해볼때 어떤 점이 불편할까요?

	
---	--

4. 수창이네 살림살이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밥상에 음식을 두 가지 얹어줄 수 있다면 무엇을 더해주고 싶은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밥이라야 산에서 캐온 나물에 도토리과 콩을 섞은 범벅과 반찬은 소금에 절인 김치뿐

( )



## 시대와 풍습을 파악하며 읽어요

◎ 학습목표

- 꺼묻거리의 의미를 알 수 있다.
- 낱말을 시대적 배경, 계절적 배경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책 속 시대의 도롱이와 식사 음식을 이해할 수 있다.

1. 다음 신라시대의 풍습을 살펴볼 때 ‘꺼묻거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답 : 무덤의 주인이 저세상 갈 때 같이 끼워서 묻는 것들. 토기나 애장품 등  
 - ‘꽃길’에서 만오가 만든 특별한 토기는 결국은 수창의 무덤에 꺼묻거리로 쓰인다. 평민이라는 이유로 누릴 수 없었던 것들을 아버지 덕분에 누리게 되는 모습이 결말 부분에 제시된다.

2. 다음 낱말들을 시대적 배경,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는 낱말로 분류하세요.  
 - 이 책에서 시대적 배경과 계절적 배경은 모두 평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이 된다. 이러한 배경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이해하며 책을 접하도록 하기 위한 문항이다.

시대적 배경
순장 귀족 평민 의원 부역 하인 들 림병

계절적 배경
삼복더위 도롱이 벼락 매미 비

3. 수창의 아버지 만오가 작업장에 입고 간 도롱이(비가 올 때 걸쳐 입는 우의)입니다. 지금 시대의 비옷과 비교해볼때 어떤 점이 불편할까요?  
 -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 중 하나로 옛 물건과 지금 물건을 비교해보는 활동이다.



1. 비가 조금 오면 비를 막아줄 것 같으나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이 새어 들어올 틈이 많을 것 같다.
2. 우산은 쓰고나서 말리기가 쉽고 금방 마르는데 도롱이는 잘 마르지 않을 것 같다.
3. 만드는 재료들이 천연재료들이라 금방 삭거나 썩을 수도 있을 것 같다.

4. 수창이네 살림살이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밥상에 음식을 두 가지 없어줄 수 있다면 무엇을 더해주고 싶은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예시답 : **불고기, 갈비, 삼겹살, 계란말이, 맛있는 김치 등**  
 - 시대적 및 상황적 배경을 이해하여 인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관련 활동이다. 또한 학생들의 입맛과 취향을 알게 되기도 한다. 단, 그 시대의 것은 눈높이를 그 시대에 맞추어 이해해야 함을 강조하고 등장인물의 가정환경에 대해 추측해보는 기회로 삼는다.



## 인물을 파악하며 읽어요

### ◎ 학습목표

- 수창이와 아버지 사이에 벌어진 일로 인물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 주인공 수창이의 마음 상태를 짐작하며 편지로 서술할 수 있다.

1. 수창이는 반가운 마음에 아버지 만오의 작업장에 들렀습니다. 그 다음 벌어진 일을 살펴보세요.

- 수창이와 아버지 만오의 관계와 특징을 일면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만 보면 만오는 매정한 아버지처럼 보인다. 수창이는 보라색 썩부쟁이 꽃을 좋아하는 남자아이임을 알 수 있다.

① 수창이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것은 어떤 마음상태를 나타낸 것일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꽃을 아버지가 던져버린 상황에 대한 당황스러움, 속상함 )

② 이 상황의 아버지 뒷모습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색이 어울릴까요? 왜 그런가요?

(입힐 색 : 회색 까담 : 아들에게 너무 매정하게 대해서 )

2. 다음 문장에 내 친구의 이름을 넣고 지금 시대 상황에 맞게 바꾸어 보세요.

- 수창이도 친구와 놀기를 좋아하는 어린이임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문항을 설정하였다.

오늘 수창이와 근동이는 도랑에서 누가 미꾸라지를 많이 잡나 내기를 하기로 했다.

⇒ 오늘 나와 길동이 는

한강시민공원 에서

자전거를 함께 타기 를 하기로 했다.



3. 수창이는 뽀뽀 다리를 이끌고 아버지를 생각해 따뜻한 저녁밥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수창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편지로 속마음을 털어놓아 보세요.

- 아버지를 위해 밥을 차리는 속깊은 아들의 입장이 되어 보는 기회를 갖는다. 아이지만 아버지를 챙기고 집안일을 챙기느라 속은 어른이 다 되었다. 그렇지만 어머니도 안 계신 마당에 아버지의 따뜻한 챙김과 말 한마디가 그리울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예시) 하늘에 계신 그리운 어머니께. 어머니, 저 수창이에요.

오늘도 토기를 만들다가 늦게 오실 아버지를 위해 제가 열심히 저녁밥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술 드시고 늦게 들어오셔서 밥 생각이 없다고 해서 저 혼자 먹어요. 집에서 기달리는 아들 생각해서 일찍 들어와서 같이 다정하게 밥 좀 먹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언제쯤 내 생각도 하면서 사실까요? 나는 누가 챙겨주나요? 엄마 보고 싶어요.

## 상황을 파악하며 읽어요

1. 다음 내용으로 보아 지금은 여름의 어떤 시기인가요?

해마다 이맘때 내리는 비는 만오와 같은 처지인 사람들에게 불청객처럼 찾아왔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비가 예고도 없이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 )

2. 다음 내용을 읽고 당시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자연적 현상에 의한 재해와 사회 제도에 의한 어려움으로 나누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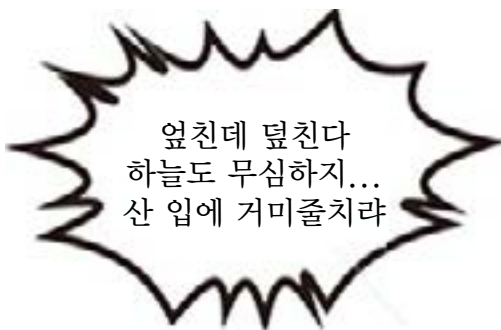
이만큼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비는 삶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큰 근심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옆친데 똥친다고 마을에 돌림병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중략)

“부역만 나갑니까? 우린 하루 끼니 걱정에 밤잠도 못 자는데 윗사람들에게 바쳐야 하는 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자연적 현상에 의한 재해>

<인간에 의한 사회적, 제도적 재해>

3. 위와 같이 힘든 생활로 인해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내가 나랏님이라면 이러한 때에 백성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겠습니까?(2가지)





## 인물을 파악하며 읽어요

1. 수창이는 만오가 만든 인물상 토기를 보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근동이에게 들려줍니다. 이야기를 엮들은 만오는 왜 ‘이상한 생각’이라고 했을까요?

“하인이 든 방울도 보이냐? 저 방울이 없으면 저세상에 갈 수 없고마. 방울이 저세상 가는 길을 알려준다 안 하나. 그러가꼬 사실은 주인상과 하인상의 위치가 바뀌어야 한데이. 지금 세상에는 하인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해야 하지만 저세상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다.” (수창이가 근동이에게 들려준 이야기)

‘저 자숙이 와 만날 **이상한 생각**을 하는가 모르겠다.’ (만오의 생각)

( )

2. 만오는 돌림병이 돌아 마을이 썩대밭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옛날의 돌림병 대처방법을 보고 지금시대의 전염병(코로나19) 대처 상황을 떠올려 비교하여 쓰세요.

“우째든동 얼라들하고 노친네들 돌림병 걸리지 않게 단디해야 할거데이.”  
그 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바깥출입을 삼가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혹 바깥출입을 했다가 돌림병이라도 얻어 올까봐 조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중에서>

<공통점>	<차이점>
-------	-------

3. 만오는 집일을 잊고 며칠동안 토기 빚는 일에만 열중합니다. 이처럼 어떤 일에 열중하다가 정작 해야 할 중요한 일을 까먹은 경험을 말해 보세요.

## 인물을 파악하며 읽어요

### ◎ 학습목표

- 수창이의 이야기 속에서 만오가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을 파악할 수 있다.
- 옛날과 지금의 돌림병(전염병) 대처 방법을 비교할 수 있다.
- 어떤 일에 열중하다가 중요한 일을 까먹은 경험을 말할 수 있다.

1. 수창이는 만오가 만든 인물상 토기를 보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근동이에게 들려줍니다. 이야기를 엮들은 만오는 왜 ‘이상한 생각’이라고 했을까요?

- 수창이가 하는 이야기 속엔 불합리한 신분제도를 뒤엎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다. 이미 신분제도와 그러한 사회구조 속에 살아온 ‘만오’로서는 그것은 불온한 생각, 또는 이상한 생각일 수 있다.

‘저 자숙이 와 만날 **이상한 생각**을 하는가 모르겠다.’ (만오의 생각)

( **그 당시의 신분제도에 어긋나는 면이 많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

2. 만오는 돌림병이 돌아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옛날의 돌림병 대처방법을 보고 지금시대의 전염병(코로나19) 대처 상황을 떠올려 비교하여 쓰세요.

-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 상황과 비슷한 면이 있는 부분이다. 지금은 다양한 백신이 발명되어 방어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많지만 옛날 시대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음을 상기한다.

〈공통점〉	〈차이점〉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바깥활동을 자제하고 집안에 있어야 하는 것.	① 현대에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어 위생을 지킬 수 있음. ② 만약에 전염되었을 경우에는 현대시대에는 의료기술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음. 옛날에 전염되었을 경우는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사망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음.

3. 만오는 집일을 잊고 며칠동안 토기 빚는 일에만 열중합니다. 이처럼 어떤 일에 열중하다가 정작 해야 할 중요한 일을 까먹은 경험을 말해 보세요.

- 만오가 토기 빚는 일에 열중하는 관계로 자식인 수창이를 잘 챙기지 못하나 만오를 비난하기에 앞서 만오와 같은 경험을 자신도 해보지 않았나 생각해보는 시간을 주는 문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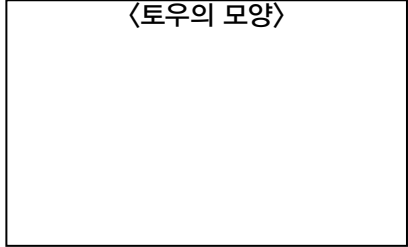
엄마의 심부름으로 내가 동생을 데릴러 갔어야 했는데 읽던 책이 너무 재미 있어서 시간을 놓치고 늦게 출발해서 엄마한테 혼난 경험이 있어요.

## 인물을 파악하며 읽어요

1. 수창이는 만오의 작업장에 있는 왜가리가 개구리 뒷다리를 무는 모양의 토우(흙인형)를 갖고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토우의 모양을 상상해서 그려보세요.



〈토우의 모양〉



2. 만오의 특별한 토기를 탐내던 촌주와 수창이가 지어낸 이야기의 왜가리와와 닮은 점은 무엇입니까? (왜가리에 관한 다음의 내용도 참고하세요)

왜가리는 재빨리 부리로 먹잇감을 포집하여 통째로 삼켜버린다. 왜가리의 탐식성은 대단하여 자라, 물고기, 뱀, 두더지, 오리새끼, 쥐, 토끼 등을 가리지 않고 사냥하며 잡은 즉시 통째로 삼켜버린다.

( )

3. 만오에게 다음의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두 사람을 날씨로 표현한다면 각각 어떤 날씨에 해당할까요?

(예시) 비가 오고 우박까지 떨어지는 스산한 날씨

	근동아범	정태아범
한 일	소식을 전한다, 수창이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죽을 쓸 거리를 내어 준다, 만오를 위로한다, 수창이가 죽었을 때 만오 대신 껌문거리와 함께 산에 묻어준다.	소식을 전한다, 만오의 특별한 토기를 촌주에게 말한다, 만오의 사정을 들어 주지 않는다, 만오가 잡혀가서 매질을 당하게 된 원인을 만든다.
날씨 비유		



## 인물을 파악하며 읽어요

### ◎ 학습목표

- 왜가리가 개구리 뒷다리를 무는 토우를 상상하여 그릴 수 있다.
- 수창이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왜가리와 촌주의 닮은 점을 말할 수 있다.
- 근동아범과 정태아범의 인물 특성과 만오에 대한 태도를 낱씨로 나타낼 수 있다.

1. 수창이는 만오의 작업장에 있는 왜가리가 개구리 뒷다리를 무는 모양의 토우(흙인형)를 갖고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토우의 모양을 상상해서 그려보세요.



2. 만오의 특별한 토기를 탐내던 촌주와 수창이가 지어낸 이야기의 왜가리와 닮은 점은 무엇입니까? (왜가리에 관한 다음의 내용도 참고하세요)

- 수창이가 지어낸 이야기의 왜가리는 힘없는 백성들에게 인정사정없이 구는 관리나 지배층과 닮아있다. 또 왜가리의 특성 중 탐식성이 대단한 점은 촌주가 토기에 대해 예술적인 접근이 아니라 탐욕적인 접근으로 만오를 잡아들여 수모를 겪게 하는 점과 닮아 있다.

(왜가리가 탐식성이 대단하고 자기에게 바른말 한 개구리 뒷다리를 물어버린 것처럼 촌주도 마을에서 자기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벌을 주고, 또 백성들의 물건을 자기것처럼 삼켜버리려 하는 점.)




3. 만오에게 다음의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두 사람을 낱씨로 표현한다면 각각 어떤 낱씨에 해당할까요?

- 근동아범과 정태아범은 만오의 작업장에 소식을 갖고 온 인물이라는 점에선 공통점이 있으나 하는 행동의 방향은 많이 다르다. 정태아범은 만오가 고초를 겪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며 이를 중간에서 무마시킬 수 있었으나 본인의 욕심(촌주에게 잘 보이려는 것)으로 이를 키운다. 반면 근동아범은 같은 토기장이이자 또래 아이를 둔 부모로서 죽어가는 아들을 보살피고 싶는데 죽을 쫓을 꺼리조차 없는 만오에게 죽꺼리를 내어준다. 어디 그뿐인가, 스러져가는 수창이의 마지막 말을 들어주고 또 아버지 만오의 사랑까지 수창이에게 전해주고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근동아범 : 파스한 햇살과 훈훈한 봄바람이 어우러지는 파사로운 봄날씨 같은 인물
- 정태아범 : 먹구름이 끼어있고 그 속에서 번개와 천둥을 종종 내리꽂으며 위협이 되는 날씨

## 내용을 파악하며 읽어요

1. 작업장에서 며칠을 보내고 집에 온 만오는 수창이의 병든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만오의 말에 담긴 절망의 정도를 눈물갯수로 칠해 보세요.

“이 자숙아, 아버지가 부르면 대답을 해야 할 거 아이아, 왜 대답도 안하고 이래 누워있냐 말이다. 퍼뜩 안 일어나나?”	
“수창아 일어나기만 해라. 이 아버지가 잘못 했다. 그깟 토기가 뭐 중요하다고 아들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제 니 깨어나면 아버지는 토기 같은 것은 안 만들거다.”	
“아닐 기다, 돌림병은 아닐거다...”	

2. 만오가 죽을 끓일 때 수창이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만오의 평소 말처럼, 부모님이 하시는 말 중에 사랑하면서도 마음을 반대로 표현하는 말,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말을 떠올려 적어 보세요.

	<p>“아버지, 제가 아파서 까무러질 거 같았을 때 무신 생각을 했는지 압니까?”</p> <p>“무신 생각을 했나?”</p> <p>“지금처럼 아버지가 시끄럽다. 아구통 안 다무나 하는 소리가 듣고 싶었심더. 저는 아버지가 말은 그래 해도 지를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심더.”</p>
--	--

( )

3. 만오는 인물상 토기를 넘기지 않아 촌주댁에 끌려 가서 모진 일을 당하고 끝내 수창이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나의 생각 : 만오의 행동은 (잘했다, 잘하지 못했다)

② 그렇게 생각한 까닭 :

## 내용을 파악하며 읽어요

- ◎ 학습목표
- 만오의 말에서 아버지로서 자책하고 절망하는 정도를 느낄 수 있다.
  - 만오와 수창이의 대화에 나오는 말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의 말을 떠올릴 수 있다.
  - 만오가 인물상 토기를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한 내 의견과 까닭을 말할 수 있다.

1. 작업장에서 며칠을 보내고 집에 온 만오는 수창이의 병든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만오의 말에 담긴 절망의 정도를 눈물갯수로 칠해 보세요.

- 만오는 죽어가는 수창이를 보고 자책하며 절망합니다. 또한 돌림병은 그래도 아니겠지 하는 하찮기 희망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눈물 5개로 칠할 수도 있겠지만 상황을 떠올리고 상상하며 이 말을 하는 만오의 마음을 느껴보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자식아, 아버지가 부르면 대답을 해야 할 거 아이아, 왜 대답도 안하고 이래 누워있냐 말이다. 퍼뜩 안 일어나나?”	(예시)4개 칠함
“수창아 일어나기만 해라. 이 아버지가 잘못 했다. 그깟 토기가 뭐 중요하다고 아들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제 니 깨어나면 아버지는 토기 같은 것은 안 만들거다.”	5개 칠함
“아닐 기다, 돌림병은 아닐거다...”	4개 칠함

2. 만오가 죽을 꿈일 때 수창이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만오의 평소 말처럼, 부모님이 하시는 말 중에 사랑하면서도 마음을 반대로 표현하는 말,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말을 떠올려 적어 보세요.

- 부모님들이 사랑하면서도 반대로 표현하거나 또는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어렸을때는 그런 표현에 헛갈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커가면서 그 안에 속정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만오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창이는 속은 다 큰 어른입니다. 이런 아버지 말에도 사랑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말 잘하는 수창이와 진즉에 다정한 대화를 나누는 아버지 ‘만오’였다면 얼마나 보기 좋았을까요.

( 못 생겼다. 동강아지, 이쁘긴 뭐가 이빠?, 아유 시끄러워, 잘하긴 뭘잘해?, 너는 주워 왔어 등등 )

3. 만오는 인물상 토기를 넘기지 않아 촌주댁에 끌려 가서 모진 일을 당하고 끝내 수창이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만오의 행동은 잘했다. 왜냐하면 수창이는 돌림병에 걸려 죽을 처지였는데 가장 아끼던 토기를 수창이를 위해 꺼문거리로 지켰으니 잘한 것이다. 덕분에 수창이는 저세상에 말을 타고 주인상이 되어 갈 수 있었다.

- 만오의 행동은 잘못했다. 왜냐하면 토기는 또 만들 수 있지만 죽어가는 아들과의 마지막은 단 한번 뿐이기 때문이다. 아들의 저세상 가는 길을 만오가 지켜주었어야 한다.

### 상황을 파악하며 읽어요

1. 다음 장소 중 여러분이 가장 마음이 쓰이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수창이네 집	만오의 작업장	촌주집 마당
--------	---------	--------

① 가장 마음 쓰이는 장소 :

② 그 까닭 :

2. 수창이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와중에도 아버지에게 토기 만드는 일을 계속 하라고 당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됩니다. 아버지는 토기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토기를 안 만들면 이 세상 어느 누가 멋들어진 토기를 만듭니까?”

“퍼뜩 일 나가이소. 아버지는 토기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만들었다는 특별한 토기를 아무한테나 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토기는 아버지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 )

3. 만오는 촌주에게 풀려나자마자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수창이를 찾으러 다닙니다. 누군가 물어본다면 당신은 만오의 사연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행인 : 저 미친 듯 보이는 사람은 왜 저러고 다니나요?

나 : 그게 말이예요. \_\_\_\_\_

\_\_\_\_\_

\_\_\_\_\_

## 상황을 파악하며 읽어요

### ◎ 학습목표

- 가장 마음 쓰이는 장소를 선택하고 그 까닭을 말할 수 있다.
- 수창이가 아버지가 계속 토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 만오의 사연을 요약해 말할 수 있다.

1. 다음 장소 중 여러분이 가장 마음이 쓰이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 다음 장소들이 주는 이미지와 의미가 있다. 여기서 ‘마음이 쓰인다’ 라는 말은 사람마다 강한 인상으로 남아있는 장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썼다.

- 수창이네 집 : 수창이가 아버지도 못 보고 돌봐주는 사람없이 혼자 죽어갈 뻔 했기 때문  
에 수창이가 너무 가여워서 마음이 쓰이는 장소입니다.

- 만오의 작업장 : 수창이가 내심 자랑스러워한 아버지의 토기들이 있던 장소이고 이 장소  
에 드나드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마음이 쓰이는 장소입니다.

- 촌주집 마당 : 아들은 죽어가는데 끌려온 만오가 고초를 겪고 있어서 두 사람이 너무 불  
쌍해서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쓰이는 장소입니다.

수창이네 집	만오의 작업장	촌주집 마당
--------	---------	--------

2. 수창이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와중에도 아버지에게 토기 만드는 일  
을 계속 하라고 당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책 초반에선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토기장이  
일에 몰두하는 아버지를 수창이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부분도 나온다. 그런데 왜 생명이 꺼져가  
는 와중에 아버지에게 토기 만드는 일을 계속 하라고 할까?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3번째 문장  
이 답이다.

( 수창이는 자기가 죽을 것을 예감하고 혼자 남은 아버지가 토기장이 일을 놓지 않고살  
을 이어갈 수 있게 이런 당부를 계속 한 것 같다. 만오가 자기 때문에 속상해하며 토기만  
드는 일을 그만두고 자책하며 폐인으로 살까봐 그런 것 같다.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아  
버지가 잘 못 살까봐 걱정해서 그렇게 말했다 등등 )

3. 만오는 촌주에게 풀려나자마자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수창이를 찾으러 다닙니  
다. 누군가 물어본다면 당신은 만오의 사연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 만오의 사연을 정리해볼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한 문항이다.

- 나 : 그게 말이예요, 저 사람이 이 마을 최고의 토기장이인데 특별한 토기하나를 내놓지않  
는다고 촌주덕에 끌려 갔어요. 끌려갈 때 돌링병 걸려서 죽어가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그  
아들이 그새 저세상으로 가버렸답니다. 갇혀 있다가 인제사 풀려나 나와보니 아들이 없는지  
라. 그래서 저리 아들을 찾으러 다닌답니다.

## 주제를 파악하며 읽어요

1. 근동아범은 수창이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주며 만오의 사랑을 대신 말로 전해 줍니다. 부모의 사랑을 비유한 문장의 빈 곳에 들어갈 낱말은?( )

그런데 수창아, 토기만큼 니도 니 아버지한테는 생명처럼 소중한기라.  
부모는 뭐라캐도 자식을 위하는 마음으로 사는 기라.  
그기 걸으로는 잘 안 보인다 캐도 마음속 짚이 있는 진실은 변하지 않는 기라.

( )이 그럭에 담겨 있는 걸 곁에서 보면 ( )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 )이 있다는 건 변하지 않는기라, 곁에서 볼 때만 보이지 않는 것 뿐인기라.

2. 만오는 수창이의 무덤 앞에서 잠들었다가 수창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보라색 꽃비가 내리는 듯했습니다. 그 꽃비가 점점 사그라지면서 만오의 눈앞에 수창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창아!”  
만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창이는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주인처럼 여러 가지 장신구를 두르고 관모도 쓰고 있었습니다. 말을 타고 어디론가 천천히 걸어가면서도 아버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고 돌아보곤 했습니다. (중략)

그때 만오는 수창이가 등 뒤에 짚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자신이 만든 곡식 주머니와 그릇, 물동이였습니다.  
“아버지, 고맙심데!”  
“수창아, 잘 가거래이.”  
만오의 목소리가 온 산을 울렸습니다. 그제야 수창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고개를 바로 돌려 앞을 보며 갔습니다. 수창이가 가는 길을 따라 꽃비로 내렸던 쑥부쟁이가 다시 한 번 떠올라 길을 만들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보라색 꽃길이 만들어져 수창이를 따라 갔습니다.

- ① ‘꽃길’에 쑥부쟁이 꽃이 가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
  
- ② 수창이는 만오가 만든 인물상 중 ( 주인상, 하인상 )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 ③ 수창이는 왜 만오에게 “아버지, 고맙심데!” 라고 말했을까요?  
( )

## 주제를 파악하며 읽어요

### ◎ 학습목표

- 근동아범이 부모의 사랑을 비유해 말한 문장에서 빈곳에 들어가는 말을 알 수 있다.
- 수창이의 무덤 앞에서 만오가 보고 겪은 것에 대해 해석할 수 있다.

1. 근동아범은 수창이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주며 만오의 사랑을 대신 말로 전해 줍니다. 부모의 사랑을 비유한 문장의 빈 곳에 들어갈 낱말은?( 물 )

- 이 책의 주제인 무뚝뚝한 만오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잘 나타낸 부분이다. 만오의 사랑을 근동아범이 수창이의 마지막 가는 길에 전해주고 있다. 비유로 표현한 것도 매우 다가오는 부분이다.

그런데 수창아, 토기만큼 니도 니 아버지한테는 생명처럼 소중한기라.  
 부모는 뭐라캐도 자식을 위한 마음으로 사는 기라.  
 거기 걸으로는 잘 안 보인다 캐도 마음속 짚이 있는 진실은 변하지 않는 기라.

( )이 그럭에 담겨 있는 걸 걸에서 보면 ( )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 )이 있다는 건 변하지 않는기라, 걸에서 볼 때만 보이지 않는 것 뿐인기라.

2. 만오는 수창이의 무덤 앞에서 잠들었다가 수창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 어찌보면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세상에서 고생만 하다간 수창이로 남는게 아니라 아버지가 지킨 꺼묻거리 인물상을 실제처럼 타고 저 세상으로 수창이가 아름답게 떠나는 부분을 아버지 만오가 보게 되기 때문이다. 만오의 한이 좀 사그라들었을까.

또한 책 제목인 ‘꽃길’의 진정한 의미를 나타내주는 부분이다. 보라색 썩부쟁이 꽃을 좋아하는 아이로 책의 앞부분에 나온 수창이는 마지막 부분에 그 썩부쟁이 꽃길과 함께 저 세상으로 건너 가게 된다.

① ‘꽃길’에 썩부쟁이 꽃이 가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수창이가 살아있을 때 좋아하던 꽃이기 때문이다. )

② 수창이는 만오가 만든 인물상 중 ( ●주인상, 하인상 )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 수창이가 인물상을 보고 만들었던 소망 담은 이야기가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세상에서는 주인상으로 살지 못했으나 저세상 가는 길에는 주인상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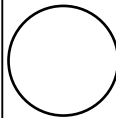
③ 수창이는 왜 만오에게 “아버지, 고맙심더!” 라고 말했을까요?

( 아버지가 모진 고초를 겪으면서도 인물상을 지켜서 꺼묻거리로 묻어주어서 내가 이렇게 저세상으로 바라던 대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고맙습니다. )

## 생각의 폭을 넓혀요 (1)

1. ‘부모가 죽으면 청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슴에 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2. 수창이의 두 마음 중 어느 쪽이 더 컸다고 생각하나요? ( > , = , < 넣기)

아버지가 토기만드는 일에만 신경쓰지 말고 내 생각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멋진 토기를 만들어서 이 마을에서 제일가는 토기장이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좋겠다.
---	---	---

3. 토기장이 만오와 아버지의 토기를 아끼는 수창이에게 상과 선물을 챙겨준다면 어떤 것이 어울릴까요?

	상 이름	선물
만오에게		
수창에게		

4. 수창이의 마지막을 지켜준 근동이 아버지처럼 주변의 마음 따뜻한 사람을 떠올려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써 보세요.

( 대상 : \_\_\_\_\_ , 까닭 : \_\_\_\_\_ )

5. 이 시대 평민의 삶을 4줄 가사로 쓰고 랩으로 불러보세요.



## 생각의 폭을 넓혀요 (1)

◎ 학습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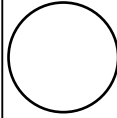
-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수창이의 마음을 알 수 있다.
- 만오, 수창, 근동아범의 행동특성과 성품을 떠올릴 수 있다.
- 당시 백성의 삶을 랩 가사로 표현할 수 있다.

1. ‘부모가 죽으면 청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슴에 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 만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항이다.

두고 두고 잊지 못한다, 가슴에 평생 맺혀 있다 는 뜻

2. 수창이의 두 마음 중 어느 쪽이 더 컸다고 생각하나요? ( ) , =, < 넣기

아버지가 토기만드는 일에만 신경쓰지 말고 내 생각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멋진 토기를 만들어서 이 마을에서 제일가는 토기장이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좋겠다.
---	---	--

- 책의 앞부분에서는 왼쪽이 더 커보이다가 뒷부분으로 갈수록 오른쪽 마음이 더 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뒷부분에서 수창이가 ‘아버지는 토기를 계속 만들어야 한다’ 고 말한 것은 제일가는 토기장이가 되라는 의미보다는 자식인 자기가 죽고 난 뒤의 아버지 인생을 걱정해서 하는 말로의 의미가 더 크다.

읽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두 마음이 비슷했다고 생각한다.

3. 토기장이 만오와 아버지의 토기를 아끼는 수창이에게 상과 선물을 챙겨준다면 어떤 것이 어울릴까요? - 상 이름을 지을때 인디언식 이름짓기 기법을 써서 그 사람의 행동 특성을 상이름으로 잡아도 좋다.

	상 이름	선물
만오에게	특별한 토기 제작상	최신식 작업장 (넓고 최고의 설비를 갖춘 곳)
수창에게	아버지 대신 집안일 최고상	텃밭과 꽃씨모음, 최신 설비 부엌

4. 수창이의 마지막을 지켜준 근동이 아버지처럼 주변의 마음 따뜻한 사람을 떠올려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써 보세요.

- (예시) 할아버지, 언제나 내 얘기를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기 때문에.

5. 이 시대 평민의 삶을 4줄 가사로 쓰고 랩으로 불러보세요.

- 5, 6학년 음악 교과서에 랩으로 가사를 불러보는 부분과 연계하여 지도해도 좋을 것이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게 빠듯해  
 우리사는 이 세상 너무나 힘들어

토기도 바치고 부역도 해야하고  
 언젠가 좋은 세상 왔으면 좋겠네

## 생각의 폭을 넓혀요 (2)

1.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인연은 하늘이 맺어 주었다고 하여 '천륜(天倫)'이라고도 부릅니다. 신라시대 부모였던 만오와 지금 천륜인 내 부모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 )

2. '부모와 자식간에는 일일이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랑은 통한다.'에 대한 나의 생각을 써 보세요.

\* 나의 의견 : ( 그렇다, 그렇지 않다 )

\* 까 달 :

3. 수창이는 아버지 걱정을 하며 건강을 챙기시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어떤 사랑의 잔소리를 하고 있나요?

(수창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발 아버지 몸도 좀 챙기쇼. 날마다 술만 묵은개 지침하는 거 아닙니까.”

4. 수창이와 아버지가 현대시대에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수창이	만오(수창이 아버지)

## 생각의 폭을 넓혀요 (2)

### ◎ 학습목표

- 수창의 아버지 만오와 내 부모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에 대한 내 의견과 까닭을 말할 수 있다.
- 수창이가 하듯 우리가 부모님께 하는 잔소리를 말할 수 있다.
- 수창이와 만오가 현대에 다시 태어났다면 어떤 삶을 살지 상상할 수 있다.

1.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인연은 하늘이 맺어 주었다고 하여 ‘천륜(天倫)’이라고도 부릅니다. 신라시대 부모였던 만오와 지금 천륜인 내 부모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이 아프면 같이 마음아파하시는 것 등등 )

2. ‘부모와 자식간에는 일일이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랑은 통한다.’에 대한 나의 생각을 써 보세요.

- 책에는 일일이 말을 하지 않아도 흐르는 부모의 사랑이 제시되어 있다. 시대가 바뀐 요즘은 어떨까?

- 그렇다, 일일이 말을 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나를 걱정하시는구나, 사랑해서 하는 말씀이지 라는게 느껴진다. 부모 자식간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

- 그렇지 않다,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식이라도 잘 알기 어렵다고 본다. 오히려 짐작하고 추측하다가 본래의 뜻이 어긋날 수도 있다. 생각을 서로 표현하고 살아야 사랑도 잘 통한다고 본다.

3. 수창이는 아버지 걱정을 하며 건강을 챙기시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어떤 사랑의 잔소리를 하고 있나요?

(수창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발 아버지 몸도 좀 챙기쇼. 날마다 술만 묵은개 지침하는 거 아닙니까.”

(예시) 아빠, 담배 좀 그만 피우세요. 기침하는 거 들으면 걱정되요.

엄마, 우리 챙기느라 너무 힘드시죠. 엄마 취미도 하면서 쉬어가며 하세요.

4. 수창이와 아버지가 현대시대에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수창이	만오(수창이 아버지)
남자 아이지만 섬세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려 놀고 꽃을 좋아하고 도자기나 예술작품 감상하는 것을 좋아한다. 도슨트나 플로리스트가 꿈이다.	도자기를 현대적 감각과 개성을 담아 잘 만드는 도자기 장인이다. 흥대에 작업실이 있고 그의 도자기는 널리 소문이 나서 외국에서도 보러 온다.

